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정 정 화¹⁾ 홍 예 지²⁾ 이 강 이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변화 유형화의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의 자녀의 입학 전, 초1, 초2 시점에서 조사한 어머니 총 289명의 설문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양육역량이 이질적 변화 양상을 보일 것임을 가정하여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한 결과 3개의 집단이 선택되었으며, ‘하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및 ‘중상위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내적 역량 및 사회적 역량, 자녀교육에 관한 심리적 기대, 정보적 지지가 양육역량 잠재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유형화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 검증 결과, 하위유지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에, 급감소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어머니들 안에서의 양육역량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한 결과이며, 이 시기를 경험하는 어머니를 위한 양육역량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형 학부모참여 패널 연구, 초등학교 전이기, 양육역량, 성장혼합모형, 종단연구

* 이 논문은 2019 학부모교육참여패널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5B8A02072579)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yeaji02@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출산과 더불어 가족의 생활패턴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가족 생활사건의 하나로 인식된다. 따라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다(신수희, 2019; 육아정책연구소, 2016;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 Rebecca, Karli, Jan & Mandy, 2010). 이와 더불어 학업성취에 대한 가치가 높고 자녀교육에 대하여 유독 어머니의 책임이 강조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이민경, 2007), 자녀의 본격적인 학령기 진입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학부모로서의 성장 및 새로운 변화에 수반되는 역할에 관한 적응은 부모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적응에 대해 초점을 두어왔으며(김은실, 2018; 염미애, 문혁준, 2008; 장혜진, 김은실, 송신영, 2014), 전이를 경험하는 또 다른 당사자인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전이기의 부모됨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김창복, 이신영, 2013; 차영숙 외, 2017)와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를 살펴본 일부 양적 연구(지성애, 2010; 허혜경, 2014)를 통하여 이 시기의 어머니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왔으나, 대체로 취학 전후의 단일 시점에서 이들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초등학교 전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주체 중

한 사람인 어머니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변화 및 적응의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객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전이기에 어머니들은 유아기보다 성숙해진 자녀의 발달을 지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양육자의 역할과 더불어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자 역할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부모역량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고(Piaget, 1952), 객관적 자아개념을 확립하며(Harter, 2003), 고등사고 및 가치관의 발달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동을 둘러싼 사회 생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독립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Furman & Buhrmester, 1992). 따라서 이 시기에 어머니는 유아기와는 또 다른 학령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 및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또래관계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역량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자녀양육을 위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가치관과 같은 내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실제로 적절히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장혜진, 윤은주, 2014).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육태도, 양육신념, 양육 효능감 등의 개념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나

(권보라, 장영은, 2012; 김미경, 김성현, 2018), 이는 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세부적 특성에 주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부모 역할수행 및 적응에 관한 지표로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지식적, 정의적, 실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는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은 개인이 가진 내적특성 및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장혜진, 윤은주, 201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에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주변 생태학적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Bronfenbrenner, 1979; Rimm-Kaufmann & Pianta, 2000), 어머니의 개인역량, 자녀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이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양상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개인역량과 관련하여 ‘내적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이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령기에 접어들며 자녀의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어머니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복합적인 부모역할 수행 및 상대적으로 찾아진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정계숙 외, 2014).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와 성장을 추구하는 내적 역량이 중요하다. 실제로 부모의 성찰적 기능 및 심리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모역할에 대한 민감성을 발휘하고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Fonagy, Steele, Steele, Morgan, & Higgitt, 1991). 따라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에서 내적 역량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전이기 동안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및 학부모로서의 역할수행 과정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적 역량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변화에 수반되는 적응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 및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양육역량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내적 역량과 더불어 어머니가 가진 사회적 역량에 따라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활동 범위는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학교, 학원 등의 지역사회로 넓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또한 교사 및 주변 학부모와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고, 교육봉사 및 학부모회 참석 등 학교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아동을 둘러싼 주변 생태 체계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신수희, 2018; 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변화를 고려했을 때, 자녀의 취학 전 시점에서 사회적 역량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전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및 학교참여 활동을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를 새로운 관계 형성 및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인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이기를 거치는 동안에 학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에 관한 유능감을 느끼고,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양육에 관한 정보 및 정서적 지지망의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하거나 혹은 양육역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낮을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가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부담으로 이어져 양육역량 전반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공적인 학교체제 안에서 자녀의 능력이 성적이나 표창제도 등으로 객관화된다는 점(신수희, 2018)과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높은 가치를 고려했을 때(이종각, 김기수, 2003), 학령기를 앞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특성이 전이기 어머니들 간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특성은 실제적인 교육지원의 행동적 측면을 의미하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과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및 성취 지향적 태도를 의미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직접적인 자녀 교육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학 전 어머니의

학습참여 행동은 자녀의 학교준비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이수현, 황혜정, 2014),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과 비교하여 부모의 교육지원 행동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지원, 전자배, 2016; 전춘애, 2013).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취학 전 시점에 어머니의 교육지원 행동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높일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이러한 어머니의 성향이 자녀의 학업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져 학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줄고,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교육지원 행동의 수준이 낮을 경우, 전이기를 거치며 학습지원의 측면에서 자녀의 학교준비에 무관심하거나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가정에서의 숙제 및 학습지도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양육역량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불안 및 성취 지향적 특성을 의미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기대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성향이 지나칠 경우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모가 이루지 못한 학업에 대한 목표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기대심리(한성열, 2008)나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느끼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로 이어져(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은 스스로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안지영, 2010), 취학 전 시점에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학령기 진입을 거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양육역량의 저하를 불러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정보적 지지’의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학교 교육과정 등에 이해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은 ‘알지 못함’에서 오는 막연함(김창복, 이신영, 2013)과 주변 지지체계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신수희, 2018; 허혜경, 2014)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취학 전 시점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적 지지의 수준이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 궤적에 따른 상이한 잠재집단 유형이 존재함을 가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역량, 자녀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별 잠재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요인으로서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전이기의 학교적응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형성과 이후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장혜진 등, 2014),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 및 성취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학교성공의 민감기’라 부르기도 한다(Rimm-Kaufmann & Pianta, 2000). 따라서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학습태도 등을 아우르는 개인특성(서미옥, 2004; 이순아, 임선아, 2019), 또래요인 및 교사와의 관계(이희정, 2018; 정대현, 지성애, 2006)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함이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긍정적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모-자녀 애착, 어머니의 교육지원과 같은 양육관련 특성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수정, 박금주, 2010a; 민미희, 2018; 전유진, 유미숙, 2014).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세부적 양육 특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어머니의 양육에 관한 지식, 정의, 실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양육역량의 개념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은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의 유형화가 갖는 의미를 어머니 개인의 적응과 안녕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연관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모-자녀 관계의 의미에 관한 시사점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변화 유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변화 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개인역량, 자녀교육 및 사회적 지지 관련 요인 중 양육역량의 잠재집단의 영향 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의 ‘한국형 학부모참여 패널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학부모참여 패널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된 조사로서(IRB No. 1702/001-005), 2017년 2월을 시작으로 매년 추적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1차(초등 입학 전), 1차년도 2차(초1), 2차년도(초2)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2017년 2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앞둔 어머니 368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어머니를 243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표본 유지율 66%). 이후 2017년 8월 165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총 42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 중 예측요인으로 상정한 변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세 시점의 자료 중 두 시점 이상에 응답한 어머니 289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1차(초등 입학 전), 1차년도 2차(초1), 2차년도(초2) 시기를 거치는 동안의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역량 요인(내적 역량, 사회적 역량), 자녀교육 요인(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사회적 지지요인(정보적 지지)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마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 289)

항목	구분	빈도(백분율)
자녀 수	1명	78(32.1%)
	2명	137(56.4%)
	3명	28(11.5%)
연령	35세 이하	62(21.5%)
	36 - 40세 이하	160(55.3%)
	41 - 45세 이하	52(18.0%)
	46세 이상	15(5.2%)
최종학력	고졸 이하	47(16.3%)
	2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76(26.3%)
	4년제 대학교 졸업	158(54.6%)
	대학원 졸업	8(2.8%)
직업	판매 · 기술 · 단순노무직	10(3.5%)
	사무직	67(23.1%)
	서비스직	34(11.8%)
	고위관리직 · 전문직	7(2.4%)
	전업주부	167(57.8%)
	자영업·프리랜서	4(1.4%)
월 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3(11.4%)
	300 - 399만원	78(27.0%)
	400 - 499만원	87(30.1%)
	500 - 599만원	48(16.6%)
	600만원 이상	43(14.9%)

지막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을 어머니의 양육역량 잠재집단의 결과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예측변인은 모두 1차년도 1차(초등 입학 전) 자료를, 결과변인은 2차년도(초2)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육역량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량(2016)이 단축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자녀발달 특징 및 욕구이해(3문항), 부모-자녀 관계이해(3문항), 건강한

부모관 갖기(3문항),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 설정(3문항), 인내심 갖기(3문항), 민주적 양육(3문항), 반응적·공감적 양육(3문항), 자녀생애 진로개발(3문항) 및 발달·학습 지원환경 제공(3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년도 1차(초등 입학 전), 1차년도 2차(초1) 및 2차년도(초2) 양육역량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91, .88 및 .91이다.

개인역량 요인

내적 역량. 어머니의 내적 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량(2016)이 단축화한 개인체계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능동적 행동(3문항), 자기주도 문제해결(3문항), 자기 삶의 방향 및 목표 설정(3문항), 강점 자기역량 개발(3문항) 및 지속적 자기 성찰(3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내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다.

사회적 역량.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량(2016)이 단축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 총 12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주변 자원 활용(3문항), 주변 환경 조절 능력(3문항), 공동체 정신(3문항) 및 사회봉사하기(3문항)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이다.

자녀교육 요인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은 심미옥(2003)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 총 23문항(학습 분위기 조성 3문항, 학습지도 5문항, 생활통제 4문항, 시간통제 3문항, 정보수집 4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입학 전 시점인 1차년도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입학 전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학습지도 및 생활통제 영역에서의 학교 및 시험에 관한 6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는 5개의 하위 요인, 총 17문항(학습 분위기 조성 3문항, 학습지도 3문항, 시간통제 3문항, 정보수집 4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에 대한 응답이 활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문항 중 학습지도에 관한 1개의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및 헌신을 아우르는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의 경우, 심미옥(2003)이 개발한 '심리적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 활동'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한 성공에 대한 신념(5 문항), 부모-자녀 동일시(4문항) 및 심리적 위축(3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문항 중 교육을 통한 성공에 대한 신념의 3개의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다.

사회적 지지 요인

정보적 지지.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리적,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측정하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 '정보적 지지'와 관련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만족한다, 5점 = 매우 불만족한다)로 평정되었으며, 해석의 용의함을 위하여 전체 문항에 대한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보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다.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에 대한 척도(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로 측정되었다. 자녀의 학교적응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생활 파악(3문항) 및 학교생활 적응(3문항)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하여 어머니가 인식한 3가지 측면(학교생활, 교사, 친구)의 적응에 대한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개인역량, 자녀교육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의 관심 변인이 각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동일 모집단 내에서 이질적 변화궤적을 보이는 하위 잠재집단을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 집단에 대한 변화궤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성장혼합모형은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질적 변화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sBIC(Solve, 1987)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모형비교 검증은 LMR과 BLRT(Lo, Mendell, & Rubin, 2001)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p값의 유의도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Lanza, Tan과 Bray (2013)는 잠재집단 분석 시 지표변인 이외에 보조변인이 분석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집단 분류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에 미치는 오분류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R3Step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 검증 시에는 BCH 방법을 적용하였다(Vermunt, 2010).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발생하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평균은 조사 시점별로 1차(학령 전) 3.89, 2차(초1) 3.88, 3차(초2) 3.86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은 10을 넘지 않아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r = .30 \sim .46, p < .01$), 변인들 간의 상관이 .8을 넘지 않아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역량	1차	3.89	.35	-.10	.05
	2차	3.88	.30	-.40	1.58
	3차	3.86	.37	-.13	.27
개인역량 요인	내적 역량 1차	3.82	.43	-.74	1.44
	사회적 역량 1차	3.70	.39	-.50	1.29
자녀교육 요인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1차	3.72	.40	-.23	.26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1차	2.99	.59	-.66	-.26
사회적지지 요인	정보적 지지 1차	3.84	.44	-.67	1.97
학교요인	학교적응 3차	4.29	.43	-.19	-.13

표 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								
2	.46**	1							
3	.30**	.38**	1						
4	.65**	.29**	.20**	1					
5	.57**	.39**	.21**	.47**	1				
6	.47**	.30**	.19**	.40**	.50**	1			
7	.21**	.16*	.02	.22**	.15*	.40**	1		
8	.26**	.21**	.09	.13*	.46**	.19**	.07	1	
9	.20**	.17**	.46**	.12	.15*	.12	-.01	.03	1

주. 1 = 양육 역량 1차, 2 = 양육 역량 2차, 3 = 양육 역량 3차, 4 = 내적 역량 1차, 5 = 사회적 역량 1차, 6 =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 1차, 7 = 자녀에 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1차, 8 = 정보적 지지 1차, 9 = 자녀의 학교적응 3차

2.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의 변화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1차에서 3차까지의 3개 시점의 무변화 모형 및 선형변화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본크기에

표 4. 양육역량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N = 289$)

모형	χ^2	df	$\Delta\chi^2(df)$	CFI	TLI	RMSEA
무변화 모형	5.967	4	-	.978	.984	.041
선형변화 모형	1.273	2	4.694(2)	1.000	1.012	.000

민감한 χ^2 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CFI, TLI 및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에 대한 두 개의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였으나, 최적의 적합도 지수를 보인 선형변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RMSEA의 경우 .06이하, CFI와 TLI는 .90이상인 경우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형태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색하였으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에서 4개까지 하나씩 증가하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질적인 양육역량의 변화 형태를 보이는 잠재집단 분석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커질수록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 값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값을 확인한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였다. 집단의 수가 3개에서 4개로 변화할 때에는 AIC, BIC 및 sBIC값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며, Entropy값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BLRT

표 5. 잠재집단 분류 기준 ($N = 289$)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472.394	466.831	468.711
	BIC	526.391	521.827	534.707
	sBIC	478.337	474.260	477.626
모형비교검증	LMR	$p < .01$	$p < .05$	$p > .05$
	BLRT	$p < .001$	$p < .001$	$p > .001$
분류의 질	Entropy	.891	.872	.716
분류율(%)	1	3.46	5.43	8.30
	2	96.54	3.72	19.38
	3		90.85	3.81
	4			68.51

표 6. 잠재집단별 비율, 명칭 및 함수 ($N = 289$)

	잠재집단	비율(%)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하위유지집단	5.43%	절편	3.342	.055	.000
			일차함수	.322	.047	.000
2	급감소집단	3.72%	절편	4.501	.032	.000
			일차함수	-.445	.031	.000
3	중상위유지집단	90.85%	절편	3.910	.084	.000
			일차함수	.547	.075	.000

와 LMR 모두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 유의하지 않았다.

제시된 모든 통계적 기준과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집단 분류를 기준(Jung & Wickarma, 2008)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는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3개 집단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3.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의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학령 전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 기간 동안 양육역량의 초기치가 가장 낮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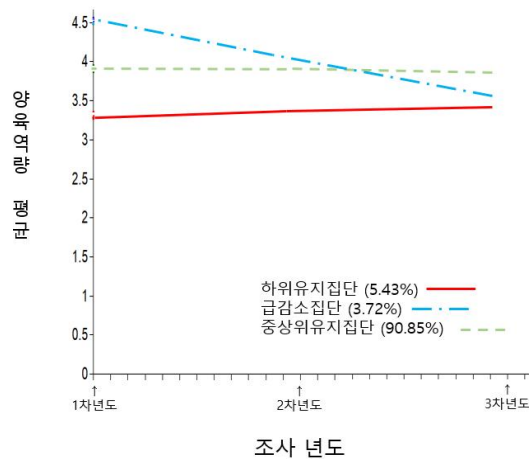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잠재집단별 변화 유형화

위유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43%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3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역량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는 집단으로 '급감소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3.72%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시간의 흐름에도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초기치에서 큰 변화 없이 중상위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중상위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90.85%를 차지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역량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 요인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 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여 잠재집단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7에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각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개인역량 요인 중 내적 역량이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보다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회적 역량이 높을수록 급감소집단보다 하위유지집단 및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 및 중상위유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 중 정보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급감소집단보다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

체계	변인	하위유지집단 vs. 급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vs. 중상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vs. 중상위유지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역량 요인	내적 역량	6.44 (3.48)	3.42** (1.18)	-3.01 (3.21)
	사회적 역량	-21.47* (9.40)	.63 (2.00)	20.84* (9.12)
자녀교육 요인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활동	1.91 (3.59)	1.06 (3.21)	-.85 (1.79)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6.62* (3.27)	.73 (1.48)	-5.89* (2.94)
사회적지지 요인	정보적 지지	-3.19 (3.42)	3.47 (2.71)	6.66* (2.94)

* $p < .05$. ** $p < .01$.

표 8. 잠재집단 유형화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 차이 검증 ($N = 289$)

	자녀의 학교적응			
	평균	표준오차	χ^2	p
하위유지집단	3.22	.12		
급감소집단	3.25	.13		
중상위유지집단	3.72	.03		
하위유지집단 vs. 급감소집단			.029	.864
하위유지집단 vs. 중상위유지집단			16.356***	.000
급감소집단 vs. 중상위유지집단			11.071**	.001

** $p < .01$. *** $p < .001$.

5.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 및 자녀의 학교적응 차이 검증 결과(Wald chi-square test)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유지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 및 급감소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위유지집단($M = 3.224$)과 중상위유지집단($M = 3.716$) 간 및 급감소집단($M = 3.254$)과 중상위유지집단($M = 3.71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시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형태의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결과요인으로서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당사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성장 및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은 하위유지집단(5.43%), 급감소집단(3.72%), 중상위유지집단(90.85%)의 3가지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야기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안정적인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허혜경(2014)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우려와 달리 다수의 어머니들이 전이기에 경험하

게 되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안정적인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하거나,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했지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양육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시기를 경험하는 어머니 집단 내에서도 양육역량 변화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개인역량에 관하여 내적 역량이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보다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에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수준이 높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 감독하는 내적 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이기를 거치는 동안에 양육역량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입학 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중상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 및 인지적 특성이 부모 역할에 본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lsky, 1984),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적 기능을 갖춘 어머니가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자녀와 분리하여 지각할 수 있고, 자녀에 욕구에 공감함으로써 긍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신효미, 유미숙, 2015; Rutherford, Booth, Luyten, Bridgett, & Mayes, 2015; Slade, Grienenberger, Bernbach, Levy, & Locker, 2005)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에 어머니의 내적 역량이 높을 경우, 전이기를 거치며 경험하는 부모 역할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자기성찰,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역량을 유지해갈 수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에서 내적 역량이 낮았던 어머니의 경우, 입학 전후로 지속적으로 양육역량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전이기를 거치며 건강한 양육역량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삶의 관리 능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적 접근을 강조하기 이전에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교육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개인역량 중 사회적 역량이 높을수록 ‘급감소집단’보다는 ‘하위유지집단’ 혹은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에서 어머니가 주변 환경을 조절할 줄 알고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이기를 거치는 동안에 양육역량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 보다는 입학 전 수준에서 변화 없이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하거나 중상위 수준으로 양육역량을 유지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머니가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거나 학교참여의 상황

에 놓이게 될 때, 사회적 능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환경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요소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의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안정성과 연결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역량의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의 경우,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양육역량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이 낮은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사회관계 확장 및 학교참여의 상황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더불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가진 사회적 역량의 스펙트럼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 관련 요인 중에서는 실질적인 어머니의 교육지원 행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지원 활동’의 경우 잠재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 요인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 및 ‘중상위유지집단’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양육역량이 낮아지는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시점에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 수준이 높고, 부모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초등학교 전이기에 경험하는 자녀의 학업 중요도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양육역량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거나 부모-

자녀 동일시 성향이 강한 부모일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보다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며(설경옥 등, 2015; Ng, Pomerantz, & Deung, 2014),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안지영, 2010)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저하를 가져오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이기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보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급감소집단’보다는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점에서 어머니가 가족, 친척, 이웃사람들로부터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수록 전이기를 거치며 양육역량이 급격히 감소하기보다는 꾸준히 중상위 수준을 유지해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Cohen & Wills, 1985)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학부모로서의 적응과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긴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양육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TV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육정

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박영주, 나중혜, 2010; 하안, 서아름, 차효은, 한다희, 임소정, 2015)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필요한 정보를 경험을 통해 전수 받는 것이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학부모 동아리와 같은 학부모 자조모임의 활성화는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형태의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유지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및 ‘급감소집단’과 ‘중상위유지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입학 전 시점에서부터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중상위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육역량을 유지했거나 혹은 입학 이후의 시점에서 급격한 양육역량의 저하를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들과 비교하여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 보다 원활히 적응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자녀의 학교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0b; 김혜금, 2012; 전지원, 전자배, 2016).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갖는 의미가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

전부터 학령초기로 이어지는 기간을 거치며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양상이 어머니 스스로의 성장과 적응에 대한 안녕감 뿐 아니라 전이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상급 교육기관으로 전이하는데 아동 개인요인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같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적 환경 전체가 역학적 관계망을 구성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 생태학적 전이모델(Rimm-Kaufman & Pianta, 2000)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경험하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한걸음 더 성장하고, 자녀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양육자로서의 역량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부모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유형을 탐색하고, 변화의 개인차와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이 시기를 경험하는 어머니가 건강한 부모관을 가지고 자녀의 발달 및 학습을 지원하는 양육역량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

는 어머니의 양육역량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체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한 집단에 다수의 인원이 편중되다보니 각 집단별로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전이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의 개인차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관련 패널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하위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아동의 성장에 따라 부모 역량의 하위요인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되거나 상호관련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정계숙 외, 201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역량의 하위 항목들의 변화 및 세부 특성을 추적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측정의 측면에서 어머니의 자기 보고로 이루어진 응답을 활용하였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보라, 장영은 (201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초등학교 자녀의 자기조절을 통해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7), 49-58.

김미경, 김성현 (2018). 의사소통 훈련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연구*, 5(1), 97-109.

김수정, 곽금주 (2010a).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김수정, 곽금주 (2010b).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27.

김은실 (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김혜금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6), 65-75.

민미희 (2018).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긍정적인 양육,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육아지원연구*, 13(4), 101-126.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1(2), 157-178.

박영주, 나종혜 (2010). 육아정보 제공 인터넷사이트의 콘텐츠 분석. *사회과학연구*, 19(1), 63-8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신수희 (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수희 (2019). 유아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23(1), 87-109.
- 신효미, 유미숙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27(1), 117-151.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
- 안지영. (2010).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55-265.
- 염미애, 문혁준 (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28(6), 91-119.
- 육아정책연구소.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민경 (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수현, 황혜정 (2014). 유아의 성과 주변 환경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학습관여, 교사의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77-203.
- 이순아, 임선아 (2019).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21-233.
- 이종각, 김기수 (2003).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이희정 (2018).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3), 387-408.
-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장혜진, 윤은주 (201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95-317.
- 전유진, 유미숙 (2014). 어머니 애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187-202.

- 전지원, 전자배 (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43(2), 5-31.
- 전춘애 (201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291-317.
- 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53-75.
-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지성애 (2010). 학부모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학논집*, 14(2), 217-248.
- 차영숙, 윤희정, 강민정 (2017).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서 어머니 경험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27.
- 하얀, 서아름, 차효은, 한다희, 임소정 (2015).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앱 북.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157-158.
- 한성열 (2008).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3-46.
- 허혜경 (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435-453.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Fonagy, P., Steele, M., Steele, H., Moran, G. S., & Higgitt, A. C.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3), 201-218.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Harter, S. (2003).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10-642). New York: Guilford.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K. M., Sher, K. J., & Schulenberg, J. E. (2005). Conjoi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ng adult alcohol and tobacco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12-626.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05)
- Lanza, S. T., Tan, X., & Bray, B. C. (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1), 1-26.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s. *Biometrika*, 88(3), 767-778.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g, F. F., Pomerantz, E. M., & Deu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6)
- Rebecca, G., Karli, T., Jan, M., & Mandy, K. (2010). Making the transition to primary school: An evaluation of a transition program for parent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17.
-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 Rutherford, H. J., Booth, C. R., Luyten, P., Bridgett, D. J., & Mayes, L. C. (2015).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distress tolerance in mother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0, 54-63.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lade, A., Grienberger, J., Bernbach, E., Levy,

- D., & Locker, A. (2005).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gap: A preliminary stud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3), 283-298.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1 차원고집수 : 2019. 10. 10.
수정원고집수 : 2019. 12. 06.
최종게재결정 : 2019. 12. 17.

Identifying Latent Classes of the Parenting Efficacy Changes Among Mothers Having Children In An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and Test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he Classes

Jung, Jung-Hwa

Hong, Yea-Ji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the parenting efficacy changes among mothers having children in an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and to test the effects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n them.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devised, using a questionnaire involving 289 mothers from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Participation Panel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nges of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latent classes: a low-level stable group, a rapid decreasing group, and a mid-high-level stable group. Second, mothers' self-schema capacity, social capacity, psychological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informational support were significant antecedents of the latent classes. Third, regarding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changes, group differences were suggested, specifically a low-level stable group versus a mid-high-level stable group, and a rapid decreasing group versus a mid-high-level stable group. These findings identified individual differences of parenting efficacy changes among mothers having children in an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and have further implication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arenting efficacy support for such individuals.

Keywords: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participation panel study,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parenting efficacy, GMM, longitudinal study